설교 자료 3편

장 차 남
(부산 온천제일교회 담임 목사)

1 사랑의 실천 생활을 위하여(요일 4:7-21)

최근 한국 기독교 내에서 사랑의 실천 운동으로 나타난 운동들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헌혈 운동, 안구 및 신장 기증 운동 등이며, 실천 생활을 통한 기독교 신앙 확산을 목적으로 일어난 단체들은 경실연(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회),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있다. 기독교 진리와 윤리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 생활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보자.

1.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

- 사람을 외모에 따라 처신함에 대한 경고 : 약 2:1이하
-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와 중심으로 진실히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 : 눅 18:9~14.
- 부자의 많은 연보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이 더 인정하심 : 막 12:41~44.
-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심(사울·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의 경우와 관련) : 삼상 16:7.
- 외모와는 판이하게 엄청난 인물로 대두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특히 육사 17기생들은 이런 회고담을 말한다. "별볼일 없는 인상 … 새까만 얼굴에 조그맣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17기생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선 안 되는구나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죠."

- 우리 나라에서는 예부터 사람됨을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기준으로 따지며 풍채주의에 병들어 있다.
- 과거 곤당골 교회의 무어 선교사가 백정 박성춘을 장로로 세운 사실과 같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모든 계층을 초월하여 동일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하며,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형제인 입장에선 더더욱 그러하다.

2.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 마 7:1이하.
- 올바른 판단력 : 이성으로 사물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지혜와 같은).
- 그릇된 판단 : 돈과 정욕에 눈이 어둡고 사단의 시험에 분별력이 흐려지면 불순한 동기에서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 똑같은 경우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것과 의심이나 미움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주 다르다.
- 사울이 무고한 다윗에 대한 부당한 처신
- 韓非子의 한 얘기 : 큰비가 와서 부잣집 담이 허물어졌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빨리 고치지 않으면 도둑이 들겁니다." 이웃 사람은 "그냥 두면 도둑이 들지 모르니 빨리 고치세요." 과연 그날밤 도둑을 맞았다. 주인은 생각하되 "아들놈도 제법 앞을 내다본단 말이야, 하지만 이웃집 사람은 좀 수상해, 그가 훔쳐갔을지 몰라"(이렇게 같은 경우라도 관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 성도는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심성과 습성을 길러야 하며,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이해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3. 가난한 자를 괄시하지 말아야 한다

- 가난한 자를 학대(압제)함에 대한 경고 : 암 4:1.
-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외면한 호화로운 부자의 결국 : 눅 16:19 이하.

- 다윗과 그 추종자들의 곤궁을 외면한 마온의 부자 나발의 어리석은 처신의 결과 : 삼상 25:2 이하.
-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는 현숙한 여인 : 잠 31:20.

4.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다 : 마 22:39, 요 13:34.
- 더욱 큰 은사, 이에 대한 제일 좋은 길은 곧 사랑 : 고전 12:31~13장.
-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최고의 단계는 사랑 : 벧후 1:4~7.
- 교회의 본질로서의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옮길 것을 경고 : 계 2:4,5.
-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고한 법 : 롬 13:8~10, 갈 5:13~15, 약 2:8.

2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창 22:1~19)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사와 세상 만사를 예지하시고 대처하시는 분이시다(롬 11:33). 야곱의 70여 가족을 흉년에서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어 사전에 역사하셨으며, 아기 모세를 물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애굽의 공주를 하수로 미리 보내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뿐이다(롬 8:28).

1. 여호와께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제물로 사용케 하심

- 본문에 나타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침에 대한 전말 언급
-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고 대답 :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믿었을

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받들 자세만 되어 있으면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의 사명을 받고 감당하려는 자는 믿음과 헌신의 자세이지 물질적 제물이 아니다.

2. 여호와께서 까마귀를 준비하셔서 식물을 공급케 하심

- 곤궁에 처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하여금 떡과 고기를 공급케 하신 하나님 : 왕상 17:1~7.
-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그 흉년과 가뭄이 지나기까지 엘리야에게 공궤토록 하신 하나님 : 왕상 17:8~16.
-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 왕상 19:5,6.
- 어떠한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 할 일에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 마 6:31~33.

3.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구원을 체험케 하심

- 불순종한 요나, 바다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뱃속에서 회개케 하시고, 육지로 토해 냄을 받아(구원)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심 : 욘 1~3장
-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해도 한번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사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사면 초가의 곤경에도 피할 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고전 10:13 참조.

③ 좋은 교회가 되려면(롬 12:14~21)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자체인 사실과 장엄한 의식보다도 성도 간 사랑의 교통이다. 본문은 성도가 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한 바, 이러한 관계는 더욱 우선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교회 내부에 적용돼야 한다. 이 모든 관점에서 좋은 교회의 조건으로 본문의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일차적으로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인간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에 맞는 분위기가 창출되어야 한다.

1.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 14절.
- 축복은 성도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덕이며 특권이다.
- 교회 안에서 말들이 오갈 때 서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는 (중상, 모략, 저주, 악담과는 반대로) 교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가!

2. 동고 동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 15절.
- 기쁨과 즐거움은 함께 나눌수록 커지고, 근심, 고통은 함께 나눌 수록 작아진다.
-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플 것이 아니라(불신자는 그럴지라도) 내가 산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이것이 성도의 마음이다).
-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자 : 갈 6:6.
- 바울의 동병 상련의 애틋한 정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 고후 11:29.
-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들로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동고동락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된다. 이런 것이 없는 교회는 따뜻한 체온과 혈관 조직, 신경 조직이 서로 통하는 사람의 몸일 수 없고, 기계의 부품의 조립과 조작, 컴퓨터 작동에 불과한 로보트와 같을 뿐,

이것은 아무리 거대해도 좋은 교회의 모형은 아니다.

3. 난 체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말라." : 16절.
- 사람에게 제일 아니꼬운 것은 "체" 하는 것, 이것은 곧 교만으로서 누구에게도 호감은 커녕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 사람이 잘 될 때 교만하도록 부추긴 다음, 나무를 흔들어 떨어뜨리듯 하는 것이 사단의 상투 수단이다.
- 우리가 세상에서 시달리고 꼴 사나운 것 본 것만으로도 식상할 지경인데 교회에까지 와서 그 꼴을 봐서야 정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서 비록 높고 잘난 자라 할지라도 서로가 더 겸손히, 더 희생적으로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선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 17절.
-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최선의 기관, 원래 종교란 지선(至善)을 추구하는 단체이므로 신앙과 더불어 선행을 도모해야 한다.
-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 엡 2:10.
- 선한 계획을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행할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 고단백 식물일수록 썩을 때 가장 악취가 나듯이, 고도의 윤리와 도덕과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부패할 때 여타의 정계, 경제계, 교육계 등이 부패함보다 더더욱 악취가 나므로 교회는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나타냄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평화가 넘쳐야 한다

-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 18절.
- 십자가(✝)는 종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고, 횡적으로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는 평화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예배당 첨탑의 ✝를 쳐다볼 때 거기서 평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성전을 찾아들 때 평화를 체험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죄악 세상에서 전투적 생활을 하노라고 시달리고 지친 몸들이 교회에 찾아 들어오면 이곳만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성함과 평화를 맛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불허한 이유는, 다윗은 용사이기에 싸움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평화와는 반대인 전쟁의 상징이니 성전 짓기엔 적절치 않은 까닭이며,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이름 뜻이 '평화'이므로 그에게 짓도록 한 것이다 : 대상 22:6~9.
-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케 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여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왕상 6:7). 이것은 성전 안에서는 잡음이나 소음이 나서는 안 되며, 정숙하고 화평해야 함을 뜻한다.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마 5:9.
- 우리 성도는 다 화목(평화)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 고후 5:18.